

“분권형 대통령제로 대선 전 개헌 추진”

한국당·국민의당·바른정당 공감대...임기 3년·연임 가능 민주 '내년 지방선거 맞춰 개헌 투표' 후보들에 입장 요구

자유한국당, 국민의당, 바른정당은 '분권형 대통령제'와 '대선 전 개헌'을 골자로 한 단일 헌법개정안 마련에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8일 전해졌다. “뜨거운 감자”인 차기 대통령의 임기 문제에 대해서 3년으로 줄이되 연임을 가능하게 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여야 3당은 민주당 개헌파들이 초안을 만들면 최종 단일안을 논의할 방침이다. 3당 소속 의원들만으로도 발의 요건인 '재적의원 과반수'(150명 이상)라는 개헌안 발의 요건을 채울 수 있지만, 재적의원 3분의 2인 200명 이상이 찬성해야 국회에서 의결될 수 있기 때문이다.

한국당 정우택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현시점에서 재량적 대통령제의 적폐를 청산할 최고의 정치개혁 방법

은 분권형 개헌이며 이는 대선 전에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며 “3당과 민주당 내 개헌파는 이미 대선 전 개헌에 공감대를 이루고 단일 개헌안 마련 작업에 들어가 있다”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 대통령과 국무총리의 권한을 어떻게 나눌 것인지와 놓고 당별로 약간의 견해차가 있지만 분권형 대통령제라는 큰 틀의 합의가 이뤄진 만큼 조율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차기 대통령 임기의 경우는 다음 국회의 원 선거에 맞춰 3년으로 줄이되 연임에 도전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안이 나와 비중있게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음 대통령을 3년 단임으로 규정하면 대선 승리가 유력한 민주당이 개헌에 찬성하지 않을 가능성을 염두에 둔 대안으로

보인다.

세부 내용이 조율돼 단일안이 마련되면 가급적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 탄핵 결정 전에 발의한다는 게 목표지만, 민주당 개헌파들의 참여가 늦어지고 있어 현실적으로 쉽지 않을 전망이다.

탄핵 결정 전 발의가 될 건널길 경우 최소한 대통령 선거일에 함께 개헌 국민투표를 동시에 진행하기 위해서는 이달 말까지는 헌법개정안을 발의할 계획이다.

개헌안은 20일 이상 공고하고 공고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국회의 결의를 거쳐야 한다. 이런 가운데 개헌을 주장해온 더불어민주당 김종진 전 비상대책위 대표가 8일 탈당해 여야 정치권의 개헌연대에 불씨를 되살릴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민주당 개헌의원 모임인 '경제민주화와 제약적 대통령제 극복을 위한 국회의원 모임'은 '5년 단임 분권형 대통령제'로 밑그림을 잡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중임제는 도입하지 않고, 대통령이 안

정적으로 국정을 수행할 수 있도록 충분한 임기를 보장하되 권한을 국무총리와 나누는 방안이다. 이 의원 측 관계자는 “통일·외교·안보는 대통령이 권한을 행사하고, 국회가 선출한 국무총리가 내정을 총괄하는 형태”라고 설명했다. 이는 국민의당 개헌특위 위원들이 마련한 자체 개헌안과 유사하다.

하지만 이 같은 개헌안은 아직 구상 단계이며, 추후 당론으로 확정되기까지는 대폭 수정·보완될 가능성도 크다.

민주당은 이날 내년 지방선거에 맞춰 개헌 국민투표를 하겠다는 입장을 밝힐 것을 대선주자들에게 요청하기로 했다.

이재정 원내대변인은 이날 “(의중에서) 우리 당 대선주자들에게 개헌에 대한 입장을 밝히라고 요구하기로 했다”며 “특히 개헌 시기와 관련해 폭넓은 의견 수렴을 통해 가능한 한 내년 지방선거 일정에 맞출 수 있도록 각 대선 후보에게 권고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임동욱기자 tuim@



야 “사드배치 즉각 철회”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오른쪽 세번째부터), 정의당 심상정 상임대표, 국민의당 안철수 전 대표 등이 8일 오전 서울시청에서 열린 세계 여성의 날 기념 제33회 한국어성대회에서 사드 관련 구호를 외치고 있다. 왼쪽은 이재정 성남시장. /연합뉴스

孫 “현장투표 안되면 경선 불참” 초강수 한국당 “文 사드 모호한 입장 국민 불안”

국민의당 툴 갈등 최고조...安 “당 중재안 수용”

국민의당 대선 후보경선 툴 갈등이 접미 가경이다.

안철수 전 대표가 8일 당의 중재안을 받아들였다고 한 발 물러섰지만 손학규 전 국민주권개혁회의 의장이 ‘현장투표 80% +속의배심원제 20%’의 툴이 관철되지 않을 경우 경선 불참까지 불사하겠다고 배수진을 쳤기 때문이다.

이날 오후 안 전 대표 측의 이용주 대변인은 “당의 중재안인 현장투표 75%, 여론조사 25% 안을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손 전 의장 측이 합의 불발 시 경선 불참을 시

사한 것을 의식해 한 발 물러선 것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안 전 대표 측의 양보에도 툴 갈등이 쉽게 풀릴 것인지는 미지수다. 손 전 의장 측이 여론조사 도입을 전제로 하는 당의 중재안도 수용하지 않겠다고 밝히고 나와서다.

손 전 의장에 대한 비판 여론도 높다. 당원 투표도 배제하면서 손 전 의장을 배려한 측면이 있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판세가 불리하자 민주당을 탈당한 김종진 전 대표를 지렛대로 때를 쓰고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임동욱기자 tuim@

지도부 광주·전남 당원 연수 참가

안상수 “농지 활용 일자리 창출”

자유한국당 지도부가 사드 배치와 관련,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해 강경 비판했다.

인명진 비상대책위원장은 8일 자유한국당 광주시당에서 열린 광주·전남 핵심당원 연수에서 “최순실 사태로 당이 어려워지니까 3선, 4선 의원들이 바른정당으로 갔는데, 대통령 비서실장·원내대표 출신도 있다. 사실은 그들에게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다.

당 대선 주자인 안상수의원은 “문 전 대표

가 주장하는 대로 사드 배치를 연기하면 영윈히 안 되는 수가 있다”며 “북한정권에 맞서 사드 배치는 빠른수록 좋다”고 주장했다.

안 의원은 또 “국토를 개조해 300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데, 눈을 ‘먹는 쌀’에서 ‘일자리 쌀’로 바꾸는 것”이라며 “저렴한 농지를 잘 활용하면 쌀을 생산하는 논에서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다. 호남의 경우 광양항과 무안국제공항과 연계한 주변 지역을 활용하면 일자리 도시를 만들 수 있다”고 말했다. 이날 행사에는 인 위원장을 비롯해 정우택 원내대표 등 당 지도부와 김관용 경북지사, 안상수 의원 등이 참석했다. /이종행기자 glee@

‘영호남 화합 전도사’ 김관용 경북도지사

“탄핵 결정 뒤 대선 출마 통합의 민생정부 만들 것”

청년 일자리 만들기 최우선 영호남화합 창조벨트 제안도



자유한국당 소속 김관용(74) 경북도지사는 8일 “탄핵심판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온 뒤 대선 출마를 선언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자유한국당 광주·전남 핵심당원 간담회 참석을 위해 광주를 방문한 김 지사는 광주일보와의 인터뷰에서 “구미시장 3선과 경북지사 3선 등 24년 간 지방자치와 함께 한 경험을 살려 민생현장에서 답을 찾는 대통령이 될 것이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모든 문제와 해답은 민생 현장에 있는데, 정치인들이 정치·경제·사회 등 모든 분야를 정략적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민의를 반영하지 못하는 것이다”면서 “이제는 패권과 진보와 보수 구도에서 벗어나 정부의 실권강령을 정하고 구체화시키는 실용 정부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무엇보다 다음 정부는 젊은이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일자리를 만들고,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갈등 해소, 해외 투자 대기업들의 국내로의 유턴, 노동 생태계 변화 등을 해결할 수 있어야 한다”면서 “특히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한 협력의 틀을 만들고, 현장에서 해법을 찾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 지사는 탄핵 심판과 관련해서는 “탄핵 여부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찬반 입장이 치열하게 부딪힌다고 하더라도 현재에서 내놓은 결과는 존중해야 한다”면서 “이를 정치권이 이용하거나, 분열로 간다면 국력은 떨어지고 국제적 신인도 부담도 커지기 때문에 탄핵 선고 이후에는 통합의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고 말했다.

분권형 개헌 필요성도 언급했다. 김 지사는 “권력이 대통령으로 집중되기 때문에 이번과 같은 탄핵 사태를 막는 것이다”면서 “권력이 집중되면 절대적 권력이 되기 때문에 권력과 기득권을 과감하게 내려놓을 수 있는 분권형 개헌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개헌의 핵심은 분권이 고, 대통령 임기 단축과 중앙집중이 아닌 지역의 대표성을 갖출 수 있도록 하는 지방분권형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동안 영·호남 상생발전에도 심혈을 기울여온 김 지사는 “통치권자의 기본은 자원의 효율적인 배분”이라며 “물적·인적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해야 하는데, 지금은 모두 중앙집권에 습관화되어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현재 광주와 대구의 달빛동맹, 전남과 경북의 나제동맹으로, 영호남 상생을 위한 노력이 꾸준히 진행되고 있다”면서 “정치적이 아닌 행정적 합의를 통해 양 지역의 사회간접자본시설(SOC) 확충과 양 지역의 역사성을 살릴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관용 지사는 그동안 영호남 상생을 위해 노력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김 지사는 지난 2014년 사람, 문화 등 다양한 분야의 교류를 확대하고, 이를 위한 지원기반을 구축해 영호남 상생에 속도를 내왔다.

김 지사는 1995년 민선 1기 구미시장에 당선된 이후 내리 3선을 했다. 그리고 2006년 경북도지사에 당선된 뒤 지금까지 경북지사 3선을 이어가고 있다. 무려 20년의 세월을 지방 현장에서 보냈다. 6선 지자체장은 전후후 한 기록으로, 우리나라 지방자치의 산증인으로 꼽힌다. /최권일기자 cki@

/사진=김진수기자 jeans@



지오옥션 부동산 중개법인(주)

20년경력 조여사 010-6211-4585

경매 추천물건

- ★ [공장] 광주 광산구 옥동 평동초등학교 인근 일반공업지역 토지 1,653㎡ 건물 1,384㎡ 감평가 11억9백 ▶ 최저가 7억8천
- ★ [건물] 전남 순천시 낙안면 이곡리 교육시설 연계스튜디오 낙안읍성인근 토지 13,179㎡ 건물 1,302,76㎡ 감평가 16억2천 ▶ 최저가 7억2천8백
- ★ [의료시설] 전남 장성군 삼서면 대곡리 요양병원 NPL가능 토지 11,546㎡ 건물 5,734㎡ 감평가 48억8천6백 ▶ 최저가 21억8천9백
- ★ [공장] 광주 북구 양산동 해태제과 광주공장 남측 일반공업지역 토지 3,653㎡ 건물 3,971㎡ 감평가 39억2천2백 ▶ 최저가 27억4천5백
- ★ [임야] 전남 화순군 동북면 연월리 97,129㎡ 묘지조성 및 납골당 시설용지 최적합. 감평가 7억5천만 ▶ 최저가 5억3천5백만
- ★ [대지] 전남 화순군 도곡면 천암리 4,494㎡ 계획관리지역 무인텔신축 최적합지 감평가 10억3천3백 ▶ 최저가 5억7천8백
- ★ [사무실] 전남 나주시 보산동 창고 및 사무실 토지 1,445㎡ 건물 301㎡ 감평가 3억3백 ▶ 최저가 2억1천백
- ★ [장례식장] 광주 서구 매월동 토지 9,625㎡ 건물 4,506㎡ 감평가 118억6천만 ▶ 최저가 118억 6천만
- ★ [무인텔] 광주 광산구 쌍암동 객실 28개 토지 1,373㎡ 건물 1,908㎡ 감평가 45억 1천만 ▶ 최저가 31억5천만

수익형 추천

- ★ [건물] 광주 서구 동천동 동림2지구내 중심상권 아파트 상가 밀집지역 하남대로변 위치좋은 지하1층~지상5층 대지 573㎡ 건물 2,215㎡ 매매 41억 (보3억3천만 월1천7백80만 포함)
- ★ [건물] 북구 신용동 천담2지구 아파트밀집지역 메인상권 4층건물 대지 780㎡ 건물 1,830㎡ 매매 48억 (보5억3천 월2천2백 포함)
- ★ [건물] 서구 금호동 아파트밀집지역 사우나·헬스 6층건물 대지 1,896㎡ 건물 1,320㎡ 1층 점포다수 고수익형 매매 54억
- ★ [건물] 광산구 공항에서 송정역 대로변 지상6층 병원건물 (한방·요양병원적합) 대지 958㎡ 건물 2,570,58㎡ 매매 35억
- ★ [건물] 북구 옥동동 양산사거리부근 대로변 메디컬센터 입점중 대지 929㎡ 건물 895㎡ 매매 63억
- ★ [건물] 동구 동명동 사우나상가5층건물 위치좋은 대로변접 현성업종 대지 452㎡ 1,464㎡ 매매 17억 (용5억포함)
- ★ [건물] 광주 서구 동천동 동림2지구내 중심상권 아파트 상가 밀집지역 위치좋은 지상5층건물 대지 476㎡ 건물 1,236㎡ 매매 24억 (보2억7천만 월1천백5십만 용6억9천만 포함)
- ★ [건물] 광주 광산구 신가동 지하~5층 상가건물 중앙아동병원 인근 대지 277㎡ 건물 604㎡ 한방·요양병원최적지 매매 37억

투자 추천 물건

- ★ [토지] 광주 북구 삼각동 31사단 정문 인근 전 1,326㎡ 1종일반주거지역 주위 식당성업종 투자적합
- ★ [건물] 광주 서구 동천동 동림2지구내 중심상권 아파트 병원 상가밀집지역 위치좋은 지하1층~지상7층 대지 602㎡ 건물 2,830㎡ 매매 55억 (보5억2천만 월2천4백20만 용25억포함)
- ★ [토지] 광주 북구 화암동 무등산공원내 담 1,700㎡ (도로점) 주말농장 및 농지원부 가능 매매가 상당후 결정
- ★ [건물] 광주 서구 매월동 자동차매매단지 옆 토지 5,359㎡ 건물 595,4㎡ 2층 공장 매매 평당2백5십만
- ★ [건물] 광산구 첨단롯데마트부근 지하~7층 요양병원 대지 1,350㎡ 건물 3,943㎡ 보5억 월3천만 매매 60억 (협약가)
- ★ [토지] 전남 담양 용면 전원주택 조성단지 토지 8,324㎡ 보전관리지역 분할가능 실수요·투자까지 높음
- ★ [토지] 전남 불산면 기곡리 광주에서 15분거리 1종일반주거지역 토지 2,045㎡ 카페, 커피숍, 전원주택부지 적합
- ★ [토지] 전남 나주시 노안면 정동리 계획관리지역 전, 담 34,085㎡ 분할매수가 매매가 상당후결정
- ★ [토지] 전남 곡성군 오산면 봉동리 계획관리지역 전·대·임야 52,299㎡ 분할매수가 평당 4만5천 (협약가)
- ★ [토지] 전남 여주시 주상동 대로점 초등학교옆 자연녹지 대지 9,157㎡ 아파트, 상가건물 신축 최상 매매 97억

공인중개사 김 재 훈 062-714-2251 배우면서 함께 일하실 공인중개사 구함